

<대구문화재단 잡음.. '끼리문화' 축소판>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문화재단이 '선장' 격인 대표이사도 없이 출범하게 됐다.

출범 전부터 대표이사 선임을 놓고 "특정 인사가 유력한 모양이더라" "시장이 막판 압축된 인사들을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더라" 등 각종 억측이 무성한 끝에 대구시가 9일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선임 유보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 기득권 사회의 끼리끼리 문화 등 고질적인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화재단도 나눠 먹기? = 대구시는 이날 김범일 대구시장을 포함해 당연직 이사 3명과 이사 11명 등 대구문화재단 이사진 1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시는 "각계의 추천을 받아 엄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진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문화계와 관련이 있는 인사는 3~4명에 불과해 비 문화계 인사가 사실상 더 많은 비정상적인 이사진 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 문화계 한 인사는 "이사진이 실질적으로 대구문화예술의 양적, 질적 성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문화재단과는 어울리지 않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형식상으로는 각계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지만 면면으로 보면 그렇지 못한 인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가세했다.

실제 일부 인사의 경우 단수 추천대 별도의 검증 절차 없이 이사진에 입성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일각에서는 대구문화재단 추천위원회에서 지난 2일 4명의 대표이사 후보자 가운데 2명을 압축, 이 중 한 명을 시장이 최종 선임하도록 했으나 시가 추천위의 검증결과를 폐기하고 대표이사 선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 추천 인사가 다수인 추천위원회의 결정을 원천 용도폐기하고 재선임 절차에 들어간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일부 추천위원이 후보 평가, 검증 과정에서 특정인에게는 높은 점수를 주고 특정인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는 등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재 선임 뿌리깊은 '불신' = 대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파문을 놓고 지역 사회 내의 뿌리깊은 '끼리끼리' 문화와 불신에서 이번 사태가 출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각종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지원단체, 산하 재단 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적임자를 찾기보다는 제한된 인력 풀을 활용해 손쉬운 방법으로 사람을 쓰고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적 네트워크나 친소 관계 등이 적지않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대구문화재단 이사진 및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구구한 억측이 많았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

이번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에서는 실제 일부 추천위원이 특정 인사를 배제하거나, 특정 인사를 측면 지원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 누구에게는 가장 높은 점수를 몰아주고, 누구에게는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결과는 수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면 대구시의 이번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과정은 평가, 검증 절차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었고 추천 결과도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문화계 한 인사는 "지역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불투명성과 끼리끼리 문화"라면서 "이번 사태도 객관성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부터 잡음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도 대표이사조차 뽑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tjda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03-09 17:06 송고]